

# 인성인권학급 실천우수사례

## 이리남초등학교 교사 : 이희청

### □ 프로그램명 : 별 땀 누리 인권 프로젝트

#### ○ 운영 목적

본 프로그램은 ‘별땀누리(꿈을 향해 함께 나아감)’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가. 아이들이 학급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상황에 알맞은 결정 내리기, 회복적 치유, 책임감과 협력 등의 핵심 역량과 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나. 인권의식을 신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함양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움.

#### ○ 운영 개요

가. 학급회의와 전교어린이 회의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며 학생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인권문화를 개선한다.

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가까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심성을 기른다.

다.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하여 인류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고운 심성을 기른다.

#### ○ 운영 내용

우리 학교는 5학급의 규모로 규모가 작아 학급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 4,5,6학년 학생들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최초에는 인권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거북이 마라톤 참가 등 학급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음. 또한 아우인형 만들기와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뜨기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활용하였음.

가.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학급회의 : 창체 시간 및 수업 자투리 시간 이용

- 원탁회의 형식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실천
- 학급의 가이드라인을 학생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는 활동
- 학급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교사가 먼저 존중해주고 지켜나감
- 서로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생활태도 형성

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전교어린이회

- 실내에서 실외화 신지 않기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규칙을 논의 및 실천
- 전교어린이회 예산을 사용하여 학교 운동회에서 함께 나누어 먹을 간식을 학생들이 함께 의논하고 예산을 집행해보는 활동
- 연말을 맞이하여 학생회 파티와 기부행사 기획, 실시예정 (12월23일)

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행사)

라. 지구촌 친구들 돕기

- 아우인형 만들기 및 기부행사 : 유니세프 아우인형 만들기 활동에 지원하여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세계의 어린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수업과 아우인형 만들기 실습. 아우인형 입양을 통해 기부활동 실천.
- 학예회 공연을 통해 모금활동, 굿네이버스에 기부
- 우수학급 예산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털모자뜨기 KIT 구입, 학생회 파티에서 털모자 함께 뜨기 행사실시 (12월 23일 예정, 4~6학년). 2017년 2월 털모자 16개 발송 예정

마. 인권 관련 독서 토론 및 줄넘기 대회, 평가회 겸 과자파티

- 학교 행사에 인권 주제를 가미하여 추가적인 행사의 증배 없이 인권에 관련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용기 없는 일주일」을 읽고 독서토론 대회를 실시하였다.
- 정치와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강직한의 파란만장 시장도전기」를 읽고 독서토론 실시 예정
-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도 학생의 권리!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줄넘기실력을 뽐낼 수 있는 줄넘기 대회 개최
-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권리! 작지만 친구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평가회 겸 과자파티 실시

○ 운영 효과

- 민주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학생들에게 체득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상, 그리고 학교 여건의 한계 상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하지만 1년간 학급, 전교 어린이회의를 아이들 주도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은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적절한 언어와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질서 있게 회의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털모자 뜨기, 아우인형 만들기에서 아쉬운 점으로 아이들이 좀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려는 자세를 가지기를 교사의 욕심을 내었으나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털모자를 뜨는 활동, 인형을 만드는 활동에만 더 집중하는 것 같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 자체에 집중하여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이 많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기대해본다.

## ○ 관련 사진

<p>학급회의-가이드라인정하기</p> 	<p>학급회의-가이드라인정하기</p> 	<p>6학년 털모자뜨기</p> 
<p>거북이마라톤대회 참가</p> 	<p>전교어린이회의 모습</p> 	<p>아우인형 만들기</p> 
<p>독서토론대회</p> 		